

지급결제 카드·계좌이체 사용 늘어

어음·수표는 줄어... 지급수단별 이용 비중, 신용카드 > 현금 > 체크·직불카드 > 계좌이체(5.3%)

비현금 지급수단 중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는 크게 늘었지만 어음이나 수표 사용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카드 이용 건수는 일평균 4669만건, 이용 금액은 2조3000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1.8%와 10.7%씩 증가했다.

신카드의 경우 이용 건수는 8.3%, 이용 금액은 9.7% 늘었다. 체크카드도 이용 건수가 18.1%, 이용 금액은 15.2%씩 증가했다.

2016년 말 현재 신용카드 발급 장수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9564만장으로 집계됐다. 체크카드 발급장수는 1억2007만장으로 전년 대비 4.1% 늘었다.

계좌이체 이용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금융기관간 일평균 계좌이체 건수는 1936만건, 이용 금액은 352조4000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4.7%와 9.1%씩 늘었다.

반면 비현금지급수단 중 수표와 어음 사용은 급감했다. 지난해 일평균 어음·수표 이용 규모는 81만3000건, 이용 금액은 21조6040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20.5%와 5.3%씩 줄었다.

자기앞수표(이용건수 -20.7%, 이용금액 -15.6%), 정액권(-21.4%, -17.4%), 약속어음(-10.0%, -4.6%) 등의 이용이 모두 크게 줄었다.



사막스키 VR 체험 지난해 31일 테크니컬 라이프스타일 웨어 브랜드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이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야외에서 '사막스키 VR 체험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은은 "신카드 사용 보편화, 5만 원권 이용 확대 등으로 자기앞수표의 이용 규모가 감소했고 금융투자회사의 콜처인 규모 축소 등으로 콜어음 발행이 줄어들면서 약속어음의 이용 규모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이 지난해 전국 19세 이상

2500명을 대상으로 소액 지급수단 활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개인이 평소 보유하는 현금 규모는 7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지급카드 보유율의 경우 신용카드는 2015년 90.2%에서 2016년 93.3%로 상승했다. 또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보유율은 2015년 96.1%에서 2016년 98.3%까지 높아졌다. 지급수단별 이용 비중을 보면 신용카드(50.6%)가 가장 높았고 현금(26.0%), 체크·직불카드(15.6%), 계좌이체(5.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뉴시스

'미래 자동차 방향과 이정표 제시'

'2017 서울모터쇼' 개막... 9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올해 11회를 맞는 '2017 서울모터쇼'가 지난달 31일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이달 9일까지 경기도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이날 개막식에는 주영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정호 국토교통부 차관, 윤정현 광주광역시장, 마크 내퍼 주한 미국 대사대리,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대사 등 주요 내·외국인사 400여명이 참석했다.

주영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 각광받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가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서비스 플랫폼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며 이런 변화에 대응한 정부의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주 장관은 세계최고 수준의 인센티브와 충전인프라 확충 등으로 올해 신차 시장의 1% 수준을 달성해 전기차 시장의 확실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율주행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규제와 스마트한 운용, 자율차 센서 등 핵심 부품에 대한 R&D 집중 지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융합 얼라이언스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품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확산, 자발적인 사업재편, 융합형 인재양성 등을 중점 지원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근본적인 수출 구조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근 서울모터쇼조직위원장은 "2017 서울모터쇼를 통해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산업융합과 제4차 산업의 단초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서울모터쇼는 미래 자동차의 기술 발전 방향과 자동차산업이 나아갈 이정표를 제시하는 등 짧은 역사에도 모터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경계가 불분명해진 현시점에 첨단센서, 통신기술, 인공지능 등과 복합적으로 결합된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가짜 뉴스' 국민 20% SNS에서

'가짜 뉴스'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가장 많이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1일 최지향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가 발표한 '가짜 뉴스 유통 현황과 이용자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19.7%가 SNS를 통해 가짜 뉴스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15.2%), '개별 인터넷 사이트(13.9%)', '종편이나 케이블 TV(13.1%)',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12.1%)', '공중파TV(8.6%)', '신문(3.1%)' 순이었다.

내용의 진위·정확성이 의심되는 뉴스나 정보의 사실 확인 위해 가장 유용한 경로로는 '네이버·다음 등 포털(48%)'이 꼽혔다. 2위는 '신문, 방송 등 언론(36%)', 3위는 'SNS(6%)'가 올랐다. '지인 문'과 '기타'는 각각 5% 답변을 받았다. /뉴시스

한은금융망 결제규모, 일평균 300조 육박

299조8000억원 전년 대비 10.1% ↑ ... 증권자금 23.9% ↑ ... 소액결제시스템 3.5% ↑

지난해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금융기관간 거래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 규모가 일평균 300조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 금융망 일일 평균 결제 금액은 전년 대비 10.1% 증가한 29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권역별로 보면 국내은행의 일평균 이체 금액이 43.8%를 차지했고 금융투자회사(30.9%), 외은지점(9.3%), 한은(7.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증권자금 이체 규모는 143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9%나 늘었다. 한은은 "특히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증가가 전체 증권자금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며 "콜시장

참여가 제한된 금융투자회사의 RP 이용이 늘어난데다 은행들도 자금 조달·운용수단으로 RP 거래를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콜자금 이체 규모는 27.7%로 11.8% 감소했다. 단기금융시장 개편 이후 금융투자회사 관련 콜자금 이체가 감소하는 가운데 시중은행도 콜거래 대신 RP거래 이용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자금 이체는 19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CLS시스템을 이용한 자금 이체(5.6%)와 은행간 환거래시스템을 통한 일반자금 이체(4.6%)가 모두 늘었다.

한은금융망 참가기관간 차액자금 이체는 16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했다. 금융공공망을 이용한

자금 이체는 8.2% 늘었지만 어음교환시스템 규모가 14.5%나 감소한 영향이다.

또 지난해 한은 금융망을 통한 외화자금 이체 규모는 일평균 5조203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 규모는 일평균 2066만건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또 결제 액수는 61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늘어났다.

한은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펌뱅킹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전자금융공공망을 통한 자금 이체 건수 및 금액 모두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시스



'리니지2 레블루션' 웹드라마, 김상중·김명민·에릭 출연

'넷마블게임즈는 모바일 MMORPG '리니지2 레블루션'에서 김상중, 김명민, 에릭이 출연한 웹드라마를 선보인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총 4편으로 제작된 웹드라마에서 김상중은 모든 것이 완벽해 직원들이 어려워하는 회사 중역으로 등장해 레블루션을 접하며 직원들과 가까워지는 역할을 맡았다.

김명민은 위아래로 차이지만 눈치 빠른 팀장으로 변신했다. 에릭은 실제 레블루션 고레벨 유저인 점을 반영해

사회에서는 눈치보기 바쁜 부하 직원이지만, 레블루션에서는 군주인 직원으로 등장한다.

심병희 마케팅실 이사는 "게임은 매개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친해지는 경험을 영상으로 재미있게 담아, 게임 브랜드를 친근하게 전달하고자 했다"며 "직장 상하관계가 레블루션 안에서는 역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도 재미 포인트"라고 말했다.

영상은 지난 1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뉴시스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